

# C3002 3형 혼합형(VUL)

##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기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3형 혼합형(VUL)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위탁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위탁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사는 신한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 1. 펀드의 개요

###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펀드명칭	3형 혼합형(VUL)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46862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추가형 일반형	최초설정일	2004.12.14
운용기간	2021.07.01 ~ 2021.09.30	존속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존속기간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우리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제한된 주식투자로부터 부분적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며, 주로 국공채, 특수채, 그리고 제한된 수량의 우량등급의 회사채에 투자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자본 이득과 이자 수익을 달성함에 있습니다. 포드폴리오 전략은 초과수익을 위한 여러 요인들(듀레이션, 수익률선, 신용, 고평가/저평가 분석 등을 활용하여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백만원,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3형 혼합형(VUL)	자산 총액 (A)	8	8	-1.27
	부채 총액 (B)	0	0	-46.07
	순자산총액 (C=A-B)	8	8	-1.21
	발행 수익증권 총수 (D)	5	5	1.91
	기준가격 (E=C/D×1000)	1,729.37	1,676.35	-3.07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행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리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 운용경과

[주식부문] 3분기 코스피는 전 분기 대비 하락하였습니다. 분기 초 델타변이 확산 및 글로벌 경기 정점 통과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2분기 기업 실적 호조세와 글로벌 증시 반등으로 국내 증시도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업황 우려가 재차 부각되는 가운데, 중국정부의 규제 이슈로 시장 변동성은 갈수록 심화되었습니다. 9월 카카오펀드를 필두로 국내 플랫폼기업에 대한 규제 우려가 부각되는 가운데 중국형 다 그룹의 파산가능성을 비롯, 중국 부동산 규제 및 긴축 우려, 원자재 급등에 따른 불안감, 미국 장기금리의 변동성 증대 등 소 KOSPI내 대형주 지수라 할 수 있는 KOSPI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투자하고 있으나, 해당 기간 KOSPI 200 지수는 -8.55% 하락하여 종합주가지수(KOSPI)의 수익률을 하회한 점이 성과 부진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채권부문] 3분기 초 국내 채권시장은 코로나19 불확실성 확대, 외국인 국제 선물 순매수, 국내 수출 둔화 등으로 장기 위주 강세 출발하였으나,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 1명이 확인이 되며 단기금리 위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8월 금통위에서 금융불균형에 중점을 두며 25bp 기준금리 인상(0.50%→0.75%, 동결 소수의견 1명)이 단행 되었으며, 시장에서는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로 받아들여지면서 3년 구간 위주 약세 폭을 축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분기말 1)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우려, 2) 외국인 국제선물 대량 매도, 3) 매파적 FOMC를 비롯한 대외금리 상승에 영향을 받아 시장금리는 대부분 단기 구간에서 연고점을 돌파하였으며, 특히 장기를 매수 심리가 취약해지며 장기 구간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며 마감하였습니다. 3분기 중 1) 공시채 비중을 시장대비 적게 가져간 섹터전략과 2) 물가채를 투한 전략은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주식부문] 9월중 에너지 관련 원자재 가격 강세를 바탕으로 물가 상승압력은 확대되었고, 미국 장기금리는 반등하였습니다. 반면 중국과 미국의 정책리스크들이 충수요 측면에서 하방 위험을 내포함에 따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지수기준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할 전망이나, 상기 매크로 불확실성들의 영향력은 계량 가능하고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는 바, 연초후 박스권 기간조정과 지난 2개월 가격조정으로 상당한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시장은 한동안 테머형 중소형주 위주의 로테

이션 구간이었으나, 향후 중소형주 보다는 건설/철강/산업재 등 저평가된 대형주들이 하락을 마무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다행히 시기는 점점 가까워 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권부문] 4분기 채권 시장은 1) 물가상승 압력, 2)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의지 등의 약세요인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1) 기준금리 두 차례 추가 인상 이상을 반영한 금리레벨, 2) 우호적인 수급 요건 등이 강세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글로벌 금리 상승에 따른 외국인 선물 매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기관 손절성 매도까지 출회하면서 금리가 급등하며 국고 3년 기준 1.80%를 상회하였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1.50%까지 추가 인상이 단행된다 하더라도 가격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1.80% 수준에서는 듀레이션을 늘리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커브의 경우 약해진 투자심리로 인하여 장기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당분간 장기물에 대한 접근은 보수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3형 혼합형(VUL)	-3.07	-1.80	-0.23	6.10
(비교지수 대비 성과)	(-1.27)	(-1.81)	(-1.26)	(0.16)
비교지수(벤치마크)	-1.80	0.01	1.03	5.94

\* 비교지수(벤치마크): KOS종합채권지수 X 65% + KOSPI X 25% + CALL X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3형 혼합형(VUL)	6.10	12.98	12.06	16.64
(비교지수 대비 성과)	(0.16)	(1.16)	(0.45)	(-1.32)
비교지수(벤치마크)	5.94	11.82	11.61	17.96

\* 비교지수(벤치마크): KOS종합채권지수 X 65% + KOSPI X 25% + CALL X 10%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전기	0	0	0	0	0	0	0	0	0	0	0	0
당기	0	0	0	0	0	0	0	0	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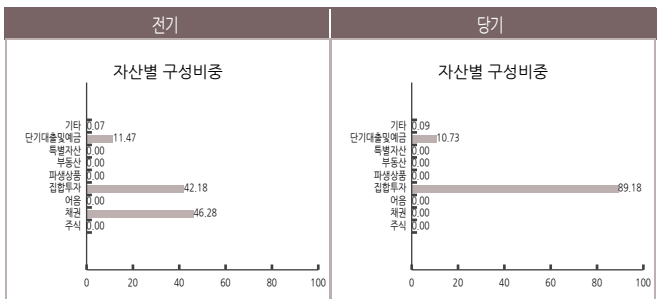
## 3. 자산현황

### ▶ 자산구성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7	0	0	0	0	0	1	0	8
(1.00)	(0.00)	(0.00)	(0.00)	(89.18)	(0.00)	(0.00)	(0.00)	(0.00)	(0.00)	(10.73)	(0.09)	(100.00)
합계	0	0	0	7	0	0	0	0	0	1	0	8

※ ( ): 구성비중



###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집합투자증권	KODEX 종합채권(AA-이상)엔티브	58.70	6	
2	집합투자증권	SOL 200TR	27.40	7	
3	1인상품	은대(우리은행)	10.73	8	
4	집합투자증권	KOSFIF 국고채10년	3.07	9	
5				10	

##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집합투자증권**

(단위:좌수,백만원,%)

종목명	종류	설정원본	순자산금액	발행국가	통화	비중
KODEX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수익증권	5	5	대한민국	KRW	58.70
SOL200TR	수익증권	2	2	대한민국	KRW	27.40
KOSF국고채10년	수익증권	0	0	대한민국	KRW	3.07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균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주,백만원,%)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예금	우리은행	2010-04-01	1	0.46	-	대한민국	KRW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균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개,백만원)

성명	직위	나이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최미영	부서장	42	81	2,556,282	-	-	2119000125
이대석	차장	39	81	2,556,282	-	-	2120001220
김태현	과장	38	81	2,556,282	-	-	2119000109
윤유라	대리	29	81	2,556,282	-	-	2121001284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현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9.01.25 ~ 현재	최미영
2020.09.17 ~ 현재	이대석
2019.01.24 ~ 현재	김태현
2021.07.16 ~ 현재	윤유라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0	0.02	0	0.02	
판매회사	0	0.16	0	0.17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0	0.19	0	0.20	
기타비용	0	0.00	0	0.00	
매매 중개수수료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0	0.00	0	0.04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	0	0.00
	합계	0	0.00	0	0.04
증권거래세	0	0.00	0	0.00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 중개수수료는 제외하였습니다.

※ 성과보수내역: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연환산,%)

	총보수:비용비율(A)	매매·중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7786	0.0135	0.7921
당기	0.7792	0.0484	0.8276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 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 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 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3형 혼합형(VUL)' 의 경우 펀드의 운용규모의 법적 기준 소규모상태(5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운용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단서에 의거하여 향후 불가피하게 임의해지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3호 및 제4호)